

[정규과정]

## 11가지 법칙으로 끝내는 스토리텔링

---

독자를 감동시키는 연출

이 자료를 통해 독자를 감동시키는 연출 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튜터 한명섭

## 독자를 감동시키는 연출

여러분이 만든 스토리를 독자가 '재미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필요한 2가지가 있다.

- 1) 스토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독자가 제대로 이해하게 해야 한다.
- 2) 스토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독자를 감동시킬 것.

작품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독자가 수비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 했는가'가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작업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건을 통해 독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흔드는 연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동은 매일같이 경험하는 기분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 스토리를 쓸 때, 작가의 입장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감정 상태에 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작품 속 인물의 기분을 변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품 속에서는 늘 문제가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야 한다거나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운석을 폭파시켜야 한다거나 하는 플롯의 중심이 되는 심각한 문제는 물론이고, 그 사이사이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문제도 포함된다.

작품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는 동시에 그에 대응하는 등장인물의 리액션(반응)을 생각해두어야 한다. 등장인물은 리액션을 선택할 때 갈등을 하고 이 갈등에 독자들이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여자 친구와의 데이트 약속이 있는 날 상사로부터 야근 지시를 받는다.”

이런 상황은 긴장감을 높여준다. 갈등의 배후에는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소망이나 욕구가 있다. 이 예의 경우에는 '여자 친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욕구와 '상사의 눈 밖에 나고 싶지 않다'는 욕구가 충돌하고 있다. 여자친구와 이별하기 직전의 상태라거나 상사를 무척 존경한다거나 하는 배경이 더해지면 스토리는 점점 복잡해진다. 거기에 타임 리미트(시한)까지 적용하면 스토리는 점점 복잡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풀려나가면 등장인물의 감정의 변동 폭을 커지게 할 수 있다. 주인공들의 감정의 변동 폭이 커질수록 독자들의 감정도 크게 동요한다. 이런 연출을 통해서 작가는 스토리를 읽는 독자에게 재미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참고문헌 : 마루야마 무쿠 저, 송경원 역, 『대중을 사로잡는 장르별 플롯』, 지금이책, 2020